

『쓰시마일기(津島日記)』에 반영된 신미통신사(1811) 연구*

한 태 문**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4. 『쓰시마일기』에 반영된 신미통신사 |
| 2. 『쓰시마일기』의 형성배경 | 1) 일본 사행단의 통신사 맞이와
여가 활동 |
| 1) 신미통신사(1811)의 파견 | 2) 필담창화를 비롯한 양국의 문화
교류 |
| 2) 草場珮川の 사행 참여와 체험의
기록 의지 | 3) 쓰시마와 조선에 대한 정보의 채록 |
| 3. 『쓰시마일기』의 서술 체제상의 특징 | 4) 통신사행에 대한 비판의식의 노정 |
| 1) 서지사항과 형식 | 5. 마무리 |
| 2) 삽화의 활용 | |

국문초록

이 글은 草場珮川の 사행록인 『쓰시마일기(津島日記)』에 반영된 신미통신사(1811)를 살핀 것이다.

첫째, 『쓰시마일기』의 형성배경을 살폈다. 『쓰시마일기』는 草場珮川이 스승인 古賀精里를 따라 쓰시마[對馬島]에서 조선에서 파견한 신미통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1318)

** 부산대학교 교수

사(1811)를 맞아 외교활동을 펼쳤던 사실을 기록한 일기체 사행록이다. 통신사를 맞아 교류하고 쓰시마를 견문한 소중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 고자 했던 草場珮川の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둘째, 『쓰시마일기』의 서술 체제상의 특징을 살폈다. 『쓰시마일기』는 국서전명식과 향응례를 기준으로 卷을 나누었고, 서술 형식은 일정한 체계가 없되 그날 견문한 내용과 공문서 등은 당일의 일기 속에 모두 수록 하였다. 특히 일기 속에 자신이 직접 그린 삽화를 수록함으로써 일기의 기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했다.

셋째, 『쓰시마일기』에 반영된 신미통신사의 모습을 살폈다. 『쓰시마일기』는 일본 사행단의 통신사 맞이와 여가 활동, 필담창화를 비롯한 양국의 문화교류, 쓰시마와 조선에 대한 정보의 채록, 통신사행에 대한 비판 의식의 노정 등 통신사를 대하는 일본 사행원의 활동과 의식을 잘 반영 하고 있었다.

이처럼 草場珮川の 『쓰시마일기』는 일본 측 사행원의 시점에서 신미 통신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록』과 같은 통신사 사행록과 함께 신미통신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텍스트로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草場珮川, 쓰시마일기[津島日記], 신미통신사(1811), 쓰시마[對馬島], 문화교류

1. 들어가기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조선의 사행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사행 체험을 시와 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행록’에 담았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맞이한 일본의 접대관들도 ‘사행록’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쓰시마일기[津島日記]』이다.¹⁾ 『쓰시마일기』는 佐賀藩의 유학자 草場珮川(1787~1867)이 신미통신사(1811)를 접대하기 위해 파견된 스승 古賀精里를 따라 쓰시마[對馬島]에 가서 활동했던 체험을 담은 일기체 사행록이다. 그동안 『쓰시마일기』에 대한 연구는 田保橋潔이 『조선국통신사역지행빙고』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²⁾ 주로 신미통신사와 관련지어 이루어졌다. 크게 경제·회화·문학·복식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훈·정성일의 연구가 있다.³⁾ 이훈은 <신미통신사의 사예단을 받을 일본 측 상대와 품목>·<공예단에 대한 일본 측 회답예물>의 항목에서 『쓰시마일기』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정성일도 신미사행 때 양국 간에 이루어진 비경제적 측면의 물적 교류를 살피면서 『쓰시마일기』에 眞墨의 단위와 조선 매·말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회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정은주·황은영의 연구가 있다.⁴⁾ 정은주는 일련의 연구에서 『쓰시마일기』에 그려진 <복식도>와 양국 문인들의 필담을 통해 중국 서화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 및 빙례 관련 대표자료로 <信使函簿圖> 등 삼화의 가치를 살폈다. 황은영은 草場珮川이 통신사 화원 이의양의 그림에 대해 ‘보잘 것 없다’는 의외의 평가를 내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 1) 이하 ‘『쓰시마일기[津島日記]』’는 본문에서는 『쓰시마일기』로, 각주에서 인용하는 원문의 출처를 밝힐 때는 『津島日記』로 적기로 한다.
 - 2)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 조선총독부 중추원, 1940, 639-894쪽.
 - 3) 이훈, 『비용으로 본 교린의례』, 『한일관계사연구』 38집, 한일관계사학회, 2011.; 정성일, 『통신사를 통해 본 물적 교류』, 『항도부산』 36집,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 4) 정은주,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문화연구』 60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1811년 신미통신사 빈례(賓禮) 관련 회화 연구』, 『정신문화연구』 138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5.; 황은영, 『1811년 신미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합집, 강원대학교 사학회, 2008.

문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원식·신로사의 연구가 있다.⁵⁾ 이원식이 『쓰시마일기』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면, 신로사는 신미사행 전체를 개괄하는 가운데 草場珮川이 『쓰시마일기』를 작성한 시점에 대해 설명한 후 수많은 채색그림의 등장을 특징으로 살피고 있다. 그리고 복식적 측면에 대해서는 『쓰시마일기』의 <通信使船團圖>와 <信使函簿圖>에 묘사된 兼定格軍의 그림을 활용하여 신미통신사 운항요원의 복식을 살핀 이주영의 연구가 있다.⁶⁾

이상의 연구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쓰시마일기』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나마 『쓰시마일기』만을 다룬 연구로는 長正統의 『影印本 津島日記』에 수록된 해제와 이예니의 『『쓰시마 일기(津島日記)』(草場珮川, 1811)』가 있을 뿐이다.⁷⁾ 전자는 『쓰시마일기』에 반영된 퇴고의 흔적과 필적 추정을 통해 저본의 성립과정과 관계를 문헌학적으로 살폈다. 후자는 저본·저자·선행연구·내용·의의와 가치 등을 살피고 있지만, 이미 ‘자료소개’라는 항목 아래 배치된 데서 알 수 있듯 『쓰시마일기』를 간략히 소개하는 차원에 그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양국의 통신사 연구에서 『쓰시마일기』만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쓰시마일기』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일본 문사가 기록한 사행록인 『쓰시마일기』만을 대상으로 그 속에 신미통신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변별성을 지닌다.

5) 이원식, 「1811년 對州易地聘禮와 문화교류」, 『조선통신사연구』 14호, 조선통신사학회, 2012.; 신로사, 「1811년 신미통신사행과 조일 문화교류: 필담·창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2011.

6) 이주영, 「1811년 신미통신사행의 통신사선 운항요원 복식」, 『한복문화』 19-3호, 한복문화학회, 2016.

7) 長正統, 『影印本 津島日記』, 西日本文化協會, 1978.; 이예니, 『『쓰시마 일기(津島日記)』(草場珮川, 1811)』, 『역사와 세계』 52, 효원사학회, 2017.

2. 『쓰시마일기』의 형성배경

1) 신미통신사(1811)의 파견

일본에서 달리 ‘文化通信使’라고 일컫는 신미통신사는 에도 막부의 10대 장군 徳川家治의 죽음을 애도하고 徳川家齊의 쇼군직 승계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계미통신사(1763) 이후 무려 48년 만에, 그것도 쇼군직 승계 후 이미 24년이나 지나 우여곡절 끝에 통신사가 파견된 것은 당시 양국이 공통적으로 처한 어려운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⁸⁾

최후의 통신사인 신미통신사는 여러모로 이전 사행과 달랐다. 이전의 통신사는 에도를 방문하여 徳川將軍을 직접 만나 국서를 교환하였지만, 신미통신사는 최종 목적지가 에도가 아닌 쓰시마로 장소가 바뀐 이른바 ‘易地通信’이었다. 국서교환도 쓰시마 번주의 저택에서 양국에서 파견된 사신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사행의 규모도 정사·부사·종사관에서 종사관이 빠지고,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통신사 재개의 발판을 마련한 마상제도 빠졌다. 게다가 사행선도 6척(기선 3척, 복선 3척)에서 4척(기선 2척, 복선 2척)으로 줄었고, 각종 예물의 폐지 및 간소화는 물론 평균 400~500명에 이르던 사행원도 336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1810년 10월 10일에 각각 통신사의 정사와 부사로 임명받은 김이교와 이면구는⁹⁾ 1811년 2월 12일 서울을 출발하여 26일 영천에서 경상감사가 베푸는 전별연에 참석한 뒤, 3월 3일 부산에 도착했다. 사행단은 이후 경

8) 신미통신사의 파견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三宅英利 저·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405-439쪽과 岩方久彦, 『19세기 조선의 대일역지통신 연구』, 경인문화사, 2017, 69-146쪽을 참조.

9) 『순조실록』 권13, 순조 10년, 1810년 10월 10일, “以金履喬爲通信使, 李勉求爲副使”. 김이교의 『辛未通信日錄』, 권1, 「使臣」에 의하면 정사에는 金履喬·趙鐘永·洪義浚이, 부사에는 李勉求·洪儀泳·李泰淳이 최종후보에 오르고, 5일 뒤 두 사신의 생년월일시를 일관 池景泌에게 주어 발행날짜를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좌수사가 베푸는 전별연(3/8), 선장 이하 사공·격군·兼定軍이 새벽 1시에 무당을 불러 지내는 延神祭(3/9), 삼사를 비롯한 전 사행원이 무사 항해를 비는 해신제(3/12)를 지내고 일본으로 향했다. 2차례(3/16, 3/22)나 출발에 실패하고 세 번 째 시도만에 윤3월 12일, 부산을 떠나 13일에 쓰시마의 佐須浦를 거쳐 마침내 29일에 쓰시마 府中에 도착했다. 이후 사행은 5월 22일 국서를 전달하고 6월 15일 회답국서를 받은 후 6월 27일 쓰시마를 출발, 7월 3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11일에 부산을 떠난 사행은 마침내 7월 26일 서울에 도착, 임금을 알현하고 복명하는 것으로 사행을 매듭지었다.

일찌감치 1807년 3월에 豊前國 小倉藩主人 小笠原忠固과 寺社奉行인 脇坂安董을 상사와 부사로 임명한 일본의 막부도 통신사를 맞이할 사절단을 쓰시마에 파견했다. 이때 서기로 임명된 대학두 林述齋도 함께 수행했다. 4월 15일에는 상사가, 5월 2일에는 부사와 林대학두가 각각 쓰시마 부중에 도착했다. 일본 사절단은 통신사를 위한 위로연(5/13)을 베풀고 조선의 국서전명식(5/22)에 참여하였으며, 2차례(6/1·6/11) 통신사를 예방한 뒤 6월 15일에 회답국서를 조선에 전달했다. 이후 6월 18일 쓰시마를 떠난 사절단은 7월 25일 에도에 도착한 후 8월 15일 쇼군에게 복명함으로써 사행의 임무를 완수했다.¹⁰⁾

2) 草場珮川の 사행 참여와 체험의 기록 의지

『쓰시마일기』의 저자 草場珮川은 1787년 1월 7일 肥前國 佐賀藩 多久에서 多久家の 가신인 草場泰虎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름은 韞, 자는 棣芳이며 보통 磋助로 불렸다. 호는 18세(1804)때 스승인 古賀穀堂이 지어준 ‘珮川’을 비롯해 ‘玉女山樵·宜齋·索綯·濯纓堂主人·宜齋’ 등이 있다. 8세(1794)에 多久邑의 교육기관이던 東原庠舍에 입학하여 15세(1801)에 선생을 대신하여 한문학습을 도와주는 句讀師補가 되었다. 일

10) 田保橋潔의 앞의 책과 三宅英利의 앞의 책을 참조.

찍부터 그의 재능을 알아본 영주 多久茂鄰의 지원으로 18세(1804)에 佐賀藩校인 弘道館에 입학, 古賀穀堂에게 배웠다. 珮川은 박람회기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蘭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스승의 영향으로 9월에는 나가사키로 갔다. 그리고 러시아 사절단의 배를 본 소감을 자신의 시집 『珮川詩抄』에 <長碕觀羅又使舶>이란 제목의 칠언절구로 남겼다.¹¹⁾

23세(1809)에 영주 多久茂鄰을 따라 에도로 간 그는 막부의 직할 교육기관인 昌平黌에 입학하여 古賀精里의 제자가 되었다.¹²⁾ 古賀精里는 珮川의 첫 스승이었던 古賀穀堂의 아버지이다. 그는 柴野栗山·尾藤二洲 등과 함께 ‘寬政의 세 박사’라 일컬어질 정도로 寬政期(1789~1800)를 대표하는 학자였다.¹³⁾ 古賀精里의 지도로 학문을 연마하던 珮川에게 나가사키 여행에 이어 또다시 외국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곧 1811년 조선통신사가 방일하자 상사와 부사를 도와 응접을 총괄하는 서기로 창평횡의 제8대 대학두 林述齋가 선발되고 창평횡의 유관 古賀精里·松崎謙堂이 그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때 古賀精里는 자신을 도와 통신사를 접대할 8명의 제자를 대동했다. 그 속에 樋口溜川(會津人)·井上熊藏(甲府人)·千葉平格(仙臺人)·佐藤武右衛門(米澤人)·前田萬

11) 草場珮川, 『珮川詩鈔』 권1, 書林文榮堂, 1853(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長風破浪萬餘程 倏忽驚人現海城 言是西來王母使 瓊瑤翡翠映江明”.

12) 草場珮川의 생애에 대해서는 高橋博巳, 『草場珮川』, 佐賀縣立佐賀城本丸歴史館, 2013; 中島槐堂, 『佐賀先哲叢話』, 佐賀木下泰山堂, 1902, 136-139쪽; 猪口篤志 저, 심경호·한예원 역, 『일본한문학사』, 소명출판, 2000, 478-480쪽을 참조.

13) 古賀精里는 1750년 10월 20일 佐賀藩 古賀村에서 대대로 佐賀藩에서 벼슬한 古賀忠能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독서를 즐겼고 처음에는 양명학을 좋아하였지만 교토로 유학하여 福井小車와 西依成齋에게 배우고 오사카에서 尾藤二洲·賴春水 등과 사귀면서 오로지 주자학에 매달렸다. 1781년 佐賀藩으로 돌아온 후 변교인 弘道館을 세워 교수가 되었고, 1796년에는 막부의 명으로 昌平黌의 유관이 되었다. 이때 片山北海에게 동문수학했던 柴野栗山과 尾藤二洲도 함께 근무하였다. 古賀精리에 대해서는 眞壁仁, 『徳川後期の學問と政治』, 名古屋大學出版會, 2007; 심경호·한예원 역, 앞의 책을 참조.

吉(忍前人)·和氣忠次郎(土佐人)·四十宮行藏(阿波人) 등과 함께 草場珮川도 포함되었다.

쓰시마에 도착한 珮川은 스승의 곁에서 ‘회답국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각종 사무를 돕는 한편, 짬을 내어 쓰시마의 곳곳을 다니며 얻은 견문을 일기 속에 그림과 함께 담았다. 특히 그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접대관이 나 문인들이 조선의 문사들과 주고받은 필담과 창화를 빠짐없이 기록한 뒤 대학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¹⁴⁾, 틈만 나면 당일 이루어진 필담과 창화의 정리에 힘썼다. 귀국길에 오른 조선 사행원들이 들고 있던 부채의 글귀조차 필담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자신이 귀로에 오르기 위해 배를 탄 6월 29일의 일기에도 “필담을 정리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일이 끝났다.”라고 적고 있을 정도이다.¹⁵⁾

그 결과, 임무를 마친 그에게 수많은 필담창화의 결과물과 쓰시마에서의 견문기록이 남게 되었다. 『쓰시마일기』에 저술 배경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25세의 나이로 조선통신사를 맞아 교류하고, 쓰시마를 살핀 소중한 체험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먼저 1810년 10월에 집을 떠나 에도의 昌平坂學問所에 도착한 뒤, 다시 1811년 윤 2월 28일 스승과 함께 창평관학문소를 출발하여 쓰시마에 도착하기 전인 5월 1일까지의 일기를 정리했다. 이 일기는 ‘천리마(스승)의 꼬리에 붙어 천리(쓰시마)까지 오게 된 체험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담아 『附驥日錄』이라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쓰시마에서의 온전한 체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묶었다. 하나는 1811년 5월 1일, 壹岐島의 勝本浦를 떠나 쓰시마에 도착하여 사행업무를 마치고 다시 壹岐島 勝本浦에 도착한 7월 4일까지의 체험을 묶어 『쓰시마일기』라 이름하였다. 또 하나는 “자리에

14) 珮川이 술을 마신 흔적은 5월 18일 쓰시마 번주의 병환으로 국서전명식이 연기되자 손님들과 바둑을 둔 후 마신 쓰시마産 술 한 잔과 6월 21일 통신사 일행과 마신 조선産 桃花酒 반 잔 뿐이었다.

15) 『津島日記』 下, 6월 29일, “午後乘船アリ筆語奏呈ノ事ヲ了ス”.

서의 자세한 사항은 필담집에 적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다(6/21).”라고 밝힌 것처럼, 조선의 문사를 상대로 스승·동료와 함께 필담창화한 내용은 따로 묶어 『對禮餘藻』(1817)라 이름하였다.¹⁶⁾

이처럼 『쓰시마일기』는 草場珮川이 통신사를 접대하고 교류한 경험과 낯선 쓰시마에 대한 견문을 소중히 간직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일본 측 접대관에 의해 작성된 사행록인 『쓰시마일기』는 『신미통신일록』(김이교)·『동사록』(유상필)·『청산도유록』(김선신) 등 통신사 사행록과 함께 신미통신사를 온전히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¹⁷⁾

3. 『쓰시마일기』의 서술 체제상의 특징

1) 서지사항과 형식

『쓰시마일기』는 현재 일본에 ①佐賀縣 多久市향토자료관 소장본, ②佐賀大學부속도서관 小城鍋島文庫 소장본, ③京都大學부속도서관 소장본 등 3종류가 전한다. 먼저 ①은 저자인 草場珮川의 후손 草場典夫가 집안 대대로 소장해 오던 것을 佐賀縣 多久市에 기증한 것으로 사본 3권 3책으로 되어 있다. 일기는 물론 그림까지도 곳곳에 붉은 색의 글씨로 수정과 교정이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검게 글자를 지운 흔적도 드러

16) 『附驥日錄』·『津島日記』·『對禮餘藻』를 草場珮川의 ‘쓰시마행 관련 기록의 삼부작’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신로사, 『1811년 신미통신사행과 조일 문화교류-필담·창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0, 47쪽.

17) 신미사행 때 산출된 일본 접대관의 기록으로는 『쓰시마일기』 외에 『文化易地聘使錄』(脇坂安董)·『對遊日記』(樋口溜川) 등이 있고, 필담창화집으로 『對禮餘藻』·『對州客館筆語』·『倭韓詩文集』(古賀精里 외)·『接鮮瘡語』(松崎謙堂)·『朝鮮人詩賦』(猪飼正毅) 등이 있다. 이밖에 三宅橋園은 개인의 자격으로 쓰시마를 다녀와 『薄遊漫載』(일기)·『鷄林情盟』(필담창화집)을 남겼다.

난다.

②는 『津島日記 全』이란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상권과 하권 사이에 『後師錄』이란 다른 자료가 삽입되고, 권마다 필적이 다른 3권 1책으로 되어 있다. ①과 달리 상권의 도입부에 16개 항목의 목차를 덧붙이고 ①에서 침삭한 내용을 깔끔하게 재정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③은 일기 2권에다 그림만을 담은 별권 1권을 합한 3책 구성으로, 책의 말미에 1921년 ①을 토대로 필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집안의 후손들이 소장해 온 것으로 침삭한 흔적이 드러나고, 그림도 일기 속에 담긴 ①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도 ①을 텍스트로 활용하기로 한다.

『쓰시마일기』는 가로 16.8cm, 세로 25cm 크기의 상·중·하 3권 3책으로 한자와 카타카나가 뒤섞인 일기 형식의 사행록이다. 상권은 草場珮川이 역지통신의 장소인 쓰시마로 가기 위해 壹岐島の 勝本浦를 떠난 1811년 5월 1일부터 국서전명식이 베풀어지기 하루 전인 5월 21일까지, 중권은 국서전명식과 향응례가 행해진 5월 22일·25일의 기록이다. 그리고 하권은 쓰시마 유학자 平山子煥으로부터 ‘延年饊’라는 명절 음식을 선물 받은 6월 1일부터 다시 귀로에 壹岐島 勝本浦에 도착한 7월 4일까지의 기록이다. ‘국서전명식’과 ‘향응례’를 기준으로 卷을 나누어 사행의 중심이 ‘국서전명식’과 ‘향응례’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일기의 서술 형식은 첫 머리에 ‘날짜’만 기록한 것과 ‘날짜+날씨’를 기록한 것으로 섞여 있되, 견문한 내용과 오간 편지 및 공문서 등은 당일의 일기 속에 빠짐없이 수록한다. 예를 들어 ‘<韓人官職姓名>’에는 사신·당상역관·제술관·서기·의원·사자관·회원 등 당시 국서전명식에 참여한 사행원의 관직·이름·자·호·생년·나이·본관까지 상세히 드러난다. 이는 정사와 부사조차 생년과 본관만 기록한 유상필의 『동사록』보다 훨씬 자세하다.¹⁸⁾

18) 부사 脇坂安董도 刀尺과 格軍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脇坂安董, 『文

기존 자료를 활용할 때는 글머리에 ‘寫’자를 적어 자신의 체험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미심쩍을 경우에는 끝에 작은 글씨로 의문점을 기록했다. 특히 사실을 부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로 항목을 설정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국서전명식이 있던 5월 22일의 기록으로, 통신사 행렬을 소개한 「鹵簿摠說凡例」, 사행원의 관직성명을 적은 「韓人官職姓名」, 조선국왕의 국서와 방물을 기록한 「朝鮮國王來書」·「朝鮮國王聘物」, 국서 전달의 차례를 적은 「書翰受取之次第」 등을 함께 담고 있다.

2) 삽화의 활용

『쓰시마일기』의 서술 체제상 가장 큰 특징은 일기 속에 저자가 직접 그린 삽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삽화는 크게 <對馬全島圖>·<府中圖>·<府中湊圖>와 같은 지도, <舟中摸景>과 같은 풍경화, <諸官員旅寓圖>·<上使小倉候旅館圖>와 같은 건물배치도, <朝鮮國王來書并圖>·<韓船仰面圖>와 같은 사물실측도, <行燈圖>·<卜龜甲圖>·<服飾圖>와 같은 사물모사도, <信使鹵簿圖>과 같은 행렬도, 畫題는 붙이지 않았지만 有明山 정상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과 국서전명식이 거행되던 府中城을 조감한 풍경화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게다가 삽화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일기처럼 그림에서도 전체를 조망한 뒤 마치 돋보기로 본 듯 자세하게 부분을 살핀다. 곧 5월 2일 일기에서 <諸官員旅寓圖>를 통해 일본 사행원의 숙소 배치를 조망한 뒤, 5월 3일 일기에는 상사의 숙소만 따로 떼어 그린 <金石古城 上使小倉候旅館圖>를 첨부한다. 또 통신사가 가져온 술방울을 그린 <松毬寫眞>은 정물화를 보는듯 실제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고, <信使鹵簿圖>는 행렬도가 통신사 접대관의 일기 속에 삽입된 매우 희귀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⁹⁾

『化易地聘使錄』 권1, 「信使一行之姓氏」(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 참조.

특히 <府中湊圖>와 양국 국서에 대한 묘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府中湊圖>에는 4척의 통신사 배가 정박한 곳이 민가와 방과제 사이이고, 모든 사행원들이 番所를 거쳐야 하는 구조임을 확연히 보여준다. 또 양국 국서는 내용은 물론 상자와 봉투의 서식 및 규격까지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다른 통신사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했던 일본 국서의 형식과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이들 삽화는 전문 화가가 그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준이 높다. 6월 27일의 일기에 삽입된 <韓船開帆圖>는 20척의 쓰시마 예인선에 끌려 귀국길에 오르는 통신사 배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원근법을 가미한 수준 높은 작품이다. 이는 저자 草場珮川이 18세때 나가사키 여행에서 아버지의 친구인 江越繡浦에게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江越繡浦는 日本畫 가운데 중국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南蕪派²⁰⁾에 속하는 화가이다. 그는 당시 주류였던 狩野派의 경직된 화풍에서 벗어나 치밀한 寫生과 선명한 채색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기풍을 추구하여 에도 후기 화풍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로부터 그림을 배운 草場珮川은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남겼다. <雪中竹畫>·<竹畫并贊>과 같은 묵죽화, <烏群柳色畫并贊>·<若鷹初獲畫并

19) 정은주, 『1811년 신미통신사 빈례(賓禮) 관련 회화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76쪽.

20) 일본의 南蕪派는 淸의 화가 沈南蕪(1682~1760)의 화풍을 추구한 일련의 화가그룹을 일컫는다. 沈南蕪은 名이 銓, 자 衡之·衡齋, 호가 南蕪으로 1731년 도일 후 나가사키에서 2년간 머물면서 熊代熊斐를 비롯한 일본 화가에게 밝은 채색을 사용한 寫生的인 화조화의 기법을 전수하였다. 熊代熊斐에서 비롯된 南蕪派는 熊代熊斐의 제자이자 草場珮川의 스승인 江越繡浦에게 이어지고, 이후 圓山應舉·伊藤若冲·與謝蕪村·渡辺崋山·司馬江漢 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橫井時冬, 『日本繪畫史』, 金港堂, 1901, 164-168쪽.; 『懷中書畫便覽, 正編』, 大日本繪畫講習會代理部, 1928, 57쪽.; 크리스틴 구스 저·강병직 역, 『에도시대의 일본 미술』, 예경, 2004, 157쪽.

贊>과 같은 화조도, <古賀穀堂像>·<多久茂孝像>·<多久茂鄰像>과 같은 초상화 등이 대표작인데, 하나같이 빼어난 작품들이다.

결국 『쓰시마일기』에 등장하는 수준 높은 삽화는 세밀한 묘사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 南蕨派의 경향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草場珮川の 화가적 면모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삽화들은 『쓰시마일기』에서 일기에 기술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4. 『쓰시마일기』에 반영된 신미통신사

1) 일본 사행단의 통신사 맞이와 여가 활동

『쓰시마일기』에는 통신사를 맞는 일본 사행단의 외교 관련 활동이 잘 드러난다.

(가) 脇坂侯와 林祭酒 이하의 官船 총 삼십여 척과 平戸에서 (쓰시마로) 보내는 쾌속선 여러 척이 일제히 닻을 바다에서 끌어올려 각각 예인선을 따라 오전 10시 쯤 7~8리 정도 나아갔다.²¹⁾

(나) 棧原의 저택에서 국서를 받는 예행연습이 있었다. 오후부터 출근하여 해질 무렵까지 이어졌다.²²⁾

(가)는 1811년 5월 1일 부사 脇坂安董과 대학두 林述齋, 유관 草場珮川 등 일본사행단이 통신사를 맞기 위해 壹岐島 勝本浦를 떠나 쓰시마로

21) 『津島日記』 上, 5월 1일, “脇坂侯林祭酒以下ノ官船總テ三十餘隻 又平戸ヨリ送迎ノ隼船數隻 一同ニ纜ヲ海テ各挽舟添フ 巳ノ下刻バカリニ七八里モ乗行キヌト思フ比”.

22) 『津島日記』 上, 5월 11일, “棧原屋敷即府城ニテ書翰受取ノ習禮アリ 午後ヨリ出仕セラレ 晩景ニ及フ”.

향하는 장면이다. 통신사는 모든 사행원이 같은 날 부산을 떠나 쓰시마로 향했지만, 일본 사행단은 상사인 小笠原忠固가 4월 15일에 쓰시마에 도착한 후 보름이 지나서야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내)는 5월 18일 예정된 조선 국왕의 국서를 받기 위한 예행연습이 쓰시마 번주가 머무는 저택의 大廣間에서 베풀어진 것을 기술하고 있다. 비록 쓰시마 번주의 병으로 18일의 국서전명식이 22일로 연기되었지만, 20일과 21일에도 14살인 岩千代가 아버지를 대신해 예행연습을 치른 것으로 나타난다.²³⁾ 다만, 예행연습의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이후 22일 일기에 국서전명식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한 것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서전명식의 차례를 적은 『書翰受取之次第』는 유상필이 『동사록』에 기록한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여 기록만으로도 오늘날 완벽한 재현이 가능할 정도이다.

이밖에 ‘賜宴儀(5/26)와 ‘受答書儀(6/15)도 기록하고 있다. ‘사연의’는 원래 이전 사행에서는 국서전달식이 끝난 후 관백이 베푸는 다례인 ‘關白茶禮’에 상응하는 통신사 일행을 위한 일본 측의 향응의례이다. 『쓰시마일기』는 양국 참여자가 간편한 옷차림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1시에 끝났다고 적은 후, 『御饗應之次第』라는 제목 아래 24개 항목에 걸쳐 그 절차를 상세히 적고 있다. 특히 직분에 따른 향응 공간과 요리의 종류도 사신(大廣間-七五三膳), 상상관(부채의 방-七五三膳), 상판사·제술관·양의(휴식소-七五三膳), 상관(구름의 방-七五三膳), 차관·소동(학의 방-三汁十一菜), 중관(현관-만두), 하관(의자-찰밥) 등으로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수답서’의는 조선 국서에 대한 일본의 회답국서를 전달하는 의식이다. 유상필은 이 의식을 “두 사신이 쓰시마 번주의 집으로 가서 국서를 접수

23) 1810년 가을부터 風疾에 걸린 쓰시마 번주는 사전에 접대를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여 막부로부터 병이 심해지면 아들 岩千代가 대행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통신사도 한 차례 전명식을 연기한 후 이를 받아들였다.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下』, 조선총독부중추원, 1940, 820쪽.

하는데, 일체를 전일의 禮와 같이 하였다.”²⁴⁾라고 간략히 기술하고 만다. 하지만 『쓰시마일기』는 회답 국서의 내용과 상자 등의 그림을 담은 <回答國書并圖>, 회답 물품의 내용과 양식을 그린 <回投物品并圖>, 회답서 전달식을 20개 항목으로 차례대로 나열한 『御返簡渡之次第』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쓰시마일기』는 일본 측이 통신사 접대에 기울인 정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도 서술한다.

(㉔) 조금 더 가면 갈대로 만든 울타리 안에 番所가 있다. 많은 소와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 통신사를 접대하기 위해 미리 나가사키 근처에서 사서 모은 것이다. 이제는 더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100여 마리나 무리지어 있었다.²⁵⁾

(㉕) 마실 물은 통신사의 내방을 대비해 쓰시마 번주가 1칸 4방 정도의 우물을 4곳 만들었다.²⁶⁾

(㉔)는 草場珮川이 府中 북동쪽에 있는 八ヶ浦 포구를 유람하면서 목격한 것이다. 쓰시마가 통신사 접대를 위해 나가사키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소와 돼지를 들여와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㉕)는 통신사가 마실 물을 마련하기 위해 쓰시마 번주가 새로운 우물을 4개나 다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육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대에 오로지 통신사를 위해 소와 돼지를 수입해 기르고 새 우물을 마련하고 있다. 비록 에도가 아닌 쓰시마에서 통신사를 맞았지만, 에도에서의 맛이 못지않게 일본 측이 통신사 접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4) 유상필, 『동사록』, 『일기』, 1811년 6월 15일, “兩使往島主家接書 一依前日禮”.
25) 『津島日記』 下, 6월 14일, “行コト程 一圍ノ鹿垣中ニ番屋アリ 多ク野牛豚屍ヲ畜ヘリ 韓客ニ饗セラルルガ爲ニ 預メ長崎近在ヨリ買集ラレシトナリ モハヤ他ノ滯モ留程ナキニ 猶カレコル百餘頭モ群レ居タリ”.
26) 『津島日記』 下, 6월 19일, “呑水ノ義 朝鮮人來聘ヲ手當トシテ 對州サマヨリ一間四方位ノ井戸四ヶ所出來ソロ”.

한편, 공적인 업무를 제외한 일본 사행원의 일상생활도 드러난다.

子煥이 『여씨춘추』에 의문이 많아 질문을 청하며 책을 들고 왔다. 나와 溜川이 읽은 책의 순서를 물으니 사서오경의 대의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에 먼저 이 책들을 읽고, 헛되이 읽기 어려운 것으로 고생하지 말라고 하였다.²⁷⁾

6월 1일에 ‘延年饌’라는 명절음식을 보내 왔던 쓰시마의 平山子煥이 『여씨춘추』에 대해 질문하자, 草場珮川과 樋口溜川이 먼저 사서삼경을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또 6월 7일에는 쓰시마 사람들의 간청에 직접 서화를 그려주기도 한다. 이처럼 사행에 참여한 일본 儒官들은 외교 업무 외에 쓰시마 주민에 대한 교육과 교류에도 정성을 쏟았다. 실제로 古賀精里의 오랜 지인이자 쓰시마의 의사인 平山周齋는 5월 19일에 아들 平山繁之允을 데리고 와서 에도의 유관들에게 수학하게 했다.

한편, 草場珮川을 비롯한 제자들은 5월 5일부터 숙소에서 스승인 古賀精里를 모시고 『대학』을 시작으로 면학도 이어갔다. 비록 이 수업이 스승의 열사병으로 9일에 중단되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장자』·『여씨춘추』 등을 읽고(6/4), 스승으로부터 경학에 사용할 만한 책으로 『松陽四書講義』를 비롯한 9권의 책이름을 소개받기도 한다(6/16). 이밖에 틈틈이 바둑을 두고(5/18) 뱃놀이를 하거나(6/9), 草場珮川과 부사의 유관인 股野嘉善이 육언율시를 지은 것처럼(6/8) 사행원끼리 모여 여가를 즐기기도 했다.

또한, 草場珮川은 일본 측의 활동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시선으로 통신사의 활동도 살피고 있다.

27) 『津島日記』 下, 6월 4일, “子煥呂氏春秋ニ疑晦多ク 質問ヲ請トテ ソノ書ヲ携フ 余溜川ト共ニカネテ讀書ノ次第ヲ問フニ 四書五經ノ大義モ未通シテ 先此等ノ書ヲヨミ 徒ラニ讀ガタキニ苦ムト云ヘリ”.

이날 통신사 일행 수십 명이 나와서 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조선인을 처음 본 것이다. 통신사는 3월 18일 이곳에 입항했는데, 매우 기다리기 힘든 듯했다. 8, 9일 전에 관내에서 등불을 수없이 밝히고 밤새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²⁸⁾

5월 6일 草場珮川이 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통신사 일행을 처음 본 소감을 적고 있다. 유상필의 『동사록』에는 이날 통신사 일행이 새 軍旗를 개조한 뒤 배 위에서 旗祭를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²⁹⁾ 조선의 軍旗가 바람과 비로 색깔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정을 알 길이 없는 草場珮川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기에 ‘旗祭’가 아니라 ‘舶祭’로 파악한 것이다. 이밖에 비록 동행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죄를 지은 조선 사행원에게 곤장을 때리는 治罪 광경(5/14)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2) 필담창화를 비롯한 양국의 문화교류

신미통신사는 수많은 지역을 거쳐 에도에 이르렀던 이전 사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인과의 문화교류가 다양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류의 공간이 비록 쓰시마에 국한되긴 했지만, 일본 측 사행원의 중심인물은 한결같이 에도 막부가 파견한 최고지식인들이었다. 곧 에도 막부의 최고 교육기관인 창평회의 책임자인 대학두 林述齋를 비롯하여 유관이자 교수인 古賀精里·松崎謙堂 및 그들의 제자들이다. 게다가 조선의 사행원 336명과 일본의 사행원 3천여 명이 약 두 달 동안 한 지역에서 머물렀기에 어떤 식으로든 교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28) 『津島日記』 上, 5월 6일, “是日 韓客數十人出行舶神ヲ祭ル コレ韓人ヲ見ルノ始ナリ 韓客ハ三月十八日爰ニ入湊シ 甚夕待カネケル由 八九日以前館内ニテ多ノ燈籠ヲ製シ 一夜高低ニ聯ネテ 祭儀ヲ行ヘリトゾ”.

29) 유상필, 『동사록』, 『일기』, 1811년 5월 6일, “所把軍物 爲風雨渝色 令兵裨改造新旗 行旗祭於船上”.

같은 藩의 어떤 의사는 통신사에게 바치려고 부탁받아 지은 칠언 이백 운의 長律을 보여주었다. 溜川과 함께 이것을 읽었는데 지루할 뿐이었다. 이윽고 脇坂公의 文學 股野嘉善이 이번에 龍野藩 사람이 조선 사람에게 주는 시를 팔백 운이나 지어서 맡겼다고 하며 나에게 주었지만 미처 볼 겨를이 없었다.³⁰⁾

일본 小倉藩의 의사와 龍野藩의 문사가³¹⁾ 일본 사행원을 통해 자신이 지은 시를 통신사에게 바치려한 정황을 적고 있다. 당시 쓰시마에는 막부에서 과견한 공식 사행원 외에 각 藩을 대표하는 지식인들도 비공식적으로 머물고 있었다. 엄격한 제약으로 통신사와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은 일본 사행원이나 쓰시마의 지인 등을 통해 끊임없이 통신사와 교류하고자 했다. 그 결과 加賀의 문인 三宅橘園은 동향 출신인 以酌菴의 승려 玄道を 매개로 통신사를 만나 『雞林情盟』이라는 필담창화집을 남겼다. 반면, 사행원이었던 小倉藩校인 思永館의 학두 石川彦岳은 게이 사행(1763) 때 통신사를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아들과 제자를 데리고 草場珮川을 찾았지만(5/12), 결국 자신도 통신사와 필담창화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비록 쓰시마 측과 막부가 통신사에게 필담창화를 요구하는 행위를 엄히 금한 탓에 예전처럼 교류가 활발하진 않았지만, 草場珮川은 예전과 달라진 교류의 상황도 적고 있다. 곧 통신사 일행이 하루빨리 쓰시마 사람과의 교류에서 벗어나 에도 문사들과 필담을 나누고 싶어한 사실을 언급한 뒤, “이번에는 앞선 통신사와 달리 조선 측에서 시문을 짓고 읊

30) 『津島日記』上, 5월 12일, “同藩ノ医 某韓客ニ贈ラントテ托セシ作トテ 七言二百韻ノ長律ヲ示サル 溜川樋口ト共ニ此ヲ讀テ タダ倦コトヲ覺フ ヤガテ又 脇坂侯ノ文學股野嘉善ノ話ニ 龍野ノ人コノタヒ贈韓ノ詩八百韻ヲ賦シテ托セリト 余伝觀ニ暇アラス”.

31) 龍野藩의 문사는 播磨國 龍野藩校인 敬樂館의 교수 藤江梅軒이다. 통신사에게 序를 부탁한다며 자신이 지은 <大石大夫遺刀記>를 草場珮川에게 전했다. 草場珮川은 이를 5월 25일자 일기에 수록하고 있다.

는 모임을 갈망하였다.”고 적었다. 또 통신사가 林述載와 古賀精里의 학덕을 흠모한 데다 특히 古賀精里의 필적을 소중히 여겨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바뀐 위상에 뿌듯해하기도 한다.³²⁾

『쓰시마일기』에 의하면 草場珮川은 4차례 통신사를 만나 필담창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³³⁾ 그 과정에서 그는 정사 김이교의 시에 화답한 제술관 이현상의 시에 차운시를 남겼고(6/9), 쓰시마의 眞文役 川邊清次郎으로부터 예전부터 내려오는 ‘필담에 대한 官法’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6/20). 다음날에는 溜川과 함께 古賀精里를 수행하여 쓰시마 번주의 선조 위패를 모신 국분사와 인근 주택을 사들여 확장한 통신사 객관을 방문하여 桃花酒를 마시며 서기 김선신·이명오와 필담창화하였고, 이를 뒤에는 다시 방문하여 병이 나은 이현상과 필담을 하였다. 6월 24일에는 통신사가 古賀精里에게 부탁한 글씨와 자신에게 부탁한 수묵화를 전하기 위해 통신사의 숙소에 들렀다가 다시 이현상·김선신·이명오와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³⁴⁾ 6월 26일에는 이별을 앞두고 이현상이 직접 새긴 도장을, 古賀精里는 美濃紙와 有田燦를, 草場珮川은 부채를 선물로 주고 받았다.

신미사행에는 필담창화를 통한 문학교류 외에 서적과 演戲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32) 『津島日記』 下, 6월 3일, “此度ハ前前ト違ヒ 彼方ヨリ文雅ノ會集ヲ渴望センコトナリ”; 6월 26일, “林祭酒及我師ノ學德ヲ 彼レ深ク歎羨傾慕シ 特ニ師ノ筆蹟ヲ珍重シ 需メテヤマザリシ事トモ 筆語中ニアリ”.

33) 『津島日記』 下, 6월 26일, “余幸ニシテ前後四度會遇ス”.

34) 『津島日記』 외에 양국의 사행록과 필담창화집에 등장하는 일본인은 小笠原忠固·脇坂安董·林述載·古賀精里·吉田元祥·月耕玄宜·樵隱·瞎驢·觀瑞·守航·丹厓, 三宅橘園·松崎謙堂·草場珮川·樋口溜川·和氣容·井上德·千葉天壽·川邊清二郎·四十宮行藏·岡本花亭·佐藤武右衛門·滕子鵬·小田勝吉 등이고, 조선인은 金履喬·李勉求·金善臣·李明五·李顯相·李文哲·皮宗鼎·金鎮周·玄斌·秦東益·河一清·李應純·李海升·李儀龍·金萬亨·李一愚·李運植·李勉玄 등이다.

淄川과 같이 시문증답을 위해 명을 받아 『淵鑑類函』과 (통신사의) 官位·職掌의 부분을 베껴 썼다. 『淵鑑類函』 등 (조선에서) 싣고 온 책이 수백 권이다. 八幡神社 앞에서 조선에서 온 하인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한 여흥으로 노래와 춤을 추는 소리가 거처에까지 들렸다. 두 명이 춤을 추고 피리와 큰북으로 반주를 하였다. 곡조가 빨라지자 자리에서 벗어나 마침내 나체로 날고 었어지는 것이 사자춤과 비슷하다고 和氣와 前田 두 사람이 보고 말했다.³⁵⁾

인용문의 전반부에는 草場珮川이 통신사와 첫 만남을 갖기 전, 스승의 명으로 동료인 樋口淄川과 함께 통신사가 가져온 『淵鑑類函』을 비롯한 책의 서목을 필사했음을 보여준다. 『淵鑑類函』은 1710년 淸의 張英이 송에서 명말까지의 類書·史書·시문집 등을 수집하여 편찬한 450권의 백과사전이다. 『淵鑑類函』을 비롯해 100권의 서적이 통신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에 전달된 셈이다. 또 제술관 이현상이 古賀精里의 『大學纂釋』을 읽고 장황한 독후감을 보낸 사실(6/26)을 통해서 사행원의 개인 저작도 교류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쓰시마일기』에는 일본 서적이 통신사에게 전달된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다른 필담창화집에는 『退溪書抄』·『晉唐總錄』·『薦錄』(大槻玄澤)·『杏園詩集續編』(大田南畝)·『古文孝經孔氏傳』(太宰春臺) 등의 책 이름이 보이고 있어³⁶⁾ 통신사행을 통한 서적의 교류를 가늠할 수 있다.

인용문의 후반부에서는 연희의 교류도 드러난다. 이전 사행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노정 지역의 일본인을 위한 통신사의 연희활동이었다.³⁷⁾ 비록 통신사의 여흥으로 묘사되었지만, 府中の 중심지인 八幡神

35) 『津島日記』 下, 6월 6일, “淄川樋口ト共ニ贈答ノ爲ニ命セラレテ 淵鑑類函官位職掌ノ部ヲ抄録ス 淵函等ノ書 數百卷載來アリ 八幡祠前ニテ 韓客ノ下輩 納涼ノ余興トテ 歌舞ノ聲寓舍ニ聞フ 兩箇ノ舞人ニ笛大鼓ノ囀子アリ. 曲亂ニ至テハ祖ギ禡ギ 遂ニ裸體ニシテ ヨク顛顛スルコト獅子舞ナト如シト和氣前田二子見テ語レリ”.

36) 신로사, 『신미(1811) 통신사행과 문화 교류에 관하여』, 『한문학보』 23호, 우리한문학회, 2010, 485-487쪽.

社 앞에서 악기 반주까지 곁들인 것을 보면 일본인을 의식한 공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월 19일 쓰시마 번주가 양국 사신들을 초청하여 베풀었던 ‘上船宴’에서도 일본 측의 요청으로 전립과 쾌자로 단장한 2명의 소동이 춤을 추기도 했다. 이는 마치 피리와 북의 반주에 맞춰 소동 2명이 對舞하는 牛窓의 ‘唐子踊’과 흡사하다. 한편, 유상필의 『동사록』에는 국서전명식을 끝내고 여유가 생긴 조선의 사신이 에도에서 데려온 大坂城傀儡들을 불러들여 유희를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⁸⁾ 당연히 『쓰시마일기』에는 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지만, 이를 통해 신미사행에서도 연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쓰시마일기』에는 서화와 음식의 교류도 드러난다. 먼저 서화의 경우 草場珮川은 6월 24일 통신사가 스승 古賀精里에게 부탁한 글씨와 자신에게 부탁한 수묵화를 전하기 위해 통신사의 숙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 스승인 古賀精里가 통신사 수행회원 이의양의 <江南雨後圖>에 題畫를 남기면서 草場珮川이 통신사의 요청으로 온갖 일을 폐하고 밤을 새가면서 그림을 그려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³⁹⁾ 특히 草場珮川은 통신사만을 대상으로 교류를 펼친 것이 아니라 쓰시마 사람의 간청에 직접 서화를 그려주고(6/7), 통신사 맞이를 위해 파견된 감찰관 鈴木椿亭을 위해 海鶴의 그림을 베껴 보내기도 한다(6/16).

음식의 경우 일본 측이 향응례와 같은 공식연회에서 제공한 ‘七五三膳’과 같은 요리와 조선 측이 제공한 음식이 있었다. 특히 5월 15일의 일기에는 조선 사신으로부터 받은 음식을 林述載가 나누어 준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품목에 대구·해삼·전복·홍어껍질·조개와 같은 해산

37) 통신사를 통한 연희교류에 대해서는 한태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 연희 교류』, 『지역과 역사』 23호, 부경역사연구소, 2008을 참조.

38) 유상필, 『동사록』, 『일기』, 1811년 5월 29일, “兩使出坐大廳避暑 招入江戸所率大坂城傀儡之輩 使之遊戲”.

39) 古賀精里, <題江南雨後圖>, “生有文才 傍善繪事 韓客爭求之 正副使以下 扇紙絹素 陸續寄請發帆前至累日夜 廢百事應副之”. 유복렬, 『한국회화대관』, 문교원, 1969, 622-623쪽.

물, 밤·잣과 같은 열매, 꽃감과자·약과와 같은 과자류 외에 개고기 육포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6월 26일에는 서기 김선신이 권하여 계란 노른자와 붉은 생선살에 식초를 뿌린 요리 등 그릇 4개가 한 별인 밥상을 대한 후, “조금 색달랐다.”라고 그 느낌을 적고 있다.⁴⁰⁾

3) 쓰시마와 조선에 대한 정보의 채록

草場珮川은 통신사 접대라는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쓰시마에 파견되었다. 약 두 달간의 쓰시마 생활은 일본인이라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 속의 異域’인 쓰시마와 ‘일본 밖의 異國’인 조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일기에 담았다.

草場珮川이 쓰시마의 부중에 도착한 5월 2일의 일기는 쓰시마 전체를 그린 <對馬全島圖>와 쓰시마 부중의 항구를 그린 <府中湊圖>에서 시작된다. 이어 『對馬摠說』이란 소제목 아래 먼저 위치·거리·면적·마을 수·농업 등으로 쓰시마를 개관한 뒤, 무려 22개 항목에 걸쳐 쓰시마를 간략히 소개한다. 그 가운데는 三郎左衛門이 처음 琉球에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와 식량으로 충당한 공을 기려 쓰시마 사람들이 매년 집집마다 은화 3푼씩을 걸어준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날에도 쓰시마의 명물로 알려져 있는 ‘산고양이(山猫)’의 존재도 적고 있다.⁴¹⁾ 그리고 다시 戶口·銀穀·年貢·영지수납량·인구·선박·동식물·도량형·절과 신사·거리·항구·숙소 등을 <府中湊圖>·<諸官員旅寓圖> 등 삽화까지 곁들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40) 『津島日記』 下, 6월 26일, “食案 各四ツ組ノ器…碟子ハ鷄卵ノ黃ミト 紅魚ノ鬻ニ酢ヲカケタリ 料理ヤヤ異ナルコトヲ覺フ”.

41) 『津島日記』 下, 5월 2일, “其外山中ニ山猫ト申物有之 並並ノ猫ヨリ大振ニテ 鳥類ヲ取り食物ニ致シ候由”. ‘三郎左衛門’은 ‘原田三郎右衛門(?~1740)’을 珮川이 잘못 기록한 것으로, 그의 무덤은 潮雲庵에, 彰德碑는 ‘甘藷翁原田君之碑’라는 이름으로 고향인 久原小學校 교정에 세워져 있다. 永留久惠, 『對馬歷史觀光』, 杉屋書店, 1994, 339쪽.

이밖에도 『쓰시마일기』는 곳곳에서 자신이 직접 견문한 내용을 소개한다. 5월 13일에는 武家の 수호신을 모신 八幡宮神社를 찾아 天寶鐘에 새겨진 銘文의 내용을 베껴 적고, 16일에는 표고버섯의 명산지인 有明山을 등산한 뒤 白岳山·和珥(鰐浦)·佐須奈浦·부산 등을 바라보고 그림과 함께 소감을 적었다. 6월 2일에는 숙소의 옆집에서 일어난 喪禮 풍속을 보며 유서 깊은 풍속이 멀고 외진 땅에 남아 있음에 놀라고, 9일에는 臥佛岬의 동쪽 해안에 있는 新羅明神의 사당과 延命寺를 유람한 소감을 적었다. 또, 26일에는 京都五山の 외교승려가 머물던 以酩菴에 들러 그 역사를 고증하고, 7월 2일에는 사행을 마치고 귀로에 小茂田浦에 들러 몽고군과 맞서 싸우다 일족이 모두 전사한 쓰시마의 영웅 平助國(1207~1274)의 비문 <平助國公碑碣>(1567) 전문을 옮겨 적기도 했다.

그 가운데 쓰시마에 전하는 ‘龜卜占’에 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다.

매해 초에 천황과 막부 및 쓰시마 번주를 위해 세 번 점을 친다고 한다. (삼화 <卜龜甲圖>) 그림과 같은 거북 등껍질의 균열은 세간에서 사용되는 상아 도장함의 뚜껑에 조각을 한 것 같아서 햇빛에 비춰보면 앞기가 종이와 같다. ... 이것에 線香의 불로 구우면 그림과 같은 모양을 그리며 탁, 탁하는 소리를 내면서 겉으로 모양이 비치게 된다. 그 때 구멍이 난 사이로 먹물을 넣으면 모양이 분명해진다. 대체로 세로 두 줄이 제대로 나온 것을 좋은 징조로 여긴다. 경사가 져서 나온 부분으로 여러 가지 차이를 읽어낸다고 한다.⁴²⁾

以酩菴의 승려 玉堂이 점복에 사용되는 거북의 등껍질을 가져와 보여 주자 草場珮川이 그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 『가라국기』에 등장하고, 雷

42) 『津島日記』 下, 6월 13일. “每歲首今上及幕府及州候ノ爲ニ 三ノトヒヲナスナリ云ヘリ. <卜龜甲圖>. 如圖鑽タルハ俗ニ用ル 牙角印積ノ蓋ユリタルヤウニテ 日透ニ見レハ薄キコト紙ノ如クナリ...フレヲ灼ニハ線香ノ火ヲ以シテ 圖スルトコノ形ヲ畫ケハプチブチト ヒビメ表ニ透ル 時ニ鑿穴ノ方ヨリ 墨ヲ入レバ 象カク鮮カナリ 大抵豎筋兩枝正シキヲ順吉ノ兆トス 斜ナル處ニ種ノ變ヲ見ルト言ヘリ”.

大臣이 한반도에서 그 기술을 배워왔다고 알려져 있지만⁴³⁾, 정작 부산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구복점’이 쓰시마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草場珮川은 단순히 형태만이 아니라 삽화까지 첨부하면서 점을 치는 방법과 해석까지 상세히 묘사한다. 이는 오늘날까지 쓰시마의 豆酸부락에서 전승되고 있는 19세기 초 구복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토민속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⁴⁴⁾ 이외에도 6월 10일의 일기에는 쓰시마 의사 平山周齋로부터 쓰시마에 전하는 ‘河童’과 ‘天狗’ 관련 설화를 듣고 <河童の崇り>·<天狗の怪>로 채록하기도 한다. 이처럼 『쓰시마일기』는 19세기 초 쓰시마 종합민속지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草場珮川은 『쓰시마일기』 곳곳에 조선에 대한 관심도 드러낸다.

(甲) 사위를 기다리는 여자의 집에 (남자가) 간다. 방의 수가 많지 않아 머물 때는 부모·형제가 떠나 친척이나 이웃집에서 묵고, 부부만 집에 들어간다. 3일간 바깥에서 자물쇠로 채워서 지낸 뒤 열리기를 기다려 바깥으로 나오면 인연이 정해졌다고 한다. 만약 부부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날 중으로 문을 열거나 벽을 부수고 나오는데 이를 絶縁이라 한다.⁴⁵⁾

43) 永留久恵, 『對馬歴史觀光』, 杉屋書店, 1994, 156쪽.

44) 季刊 『銀花』(夏·78号, 文化出版局, 1989, 14-15쪽)의 ‘특집 ① 對馬國·風と土の祀り’, お正月様と龜卜이란 항목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쓰시마의 豆酸부락에서 岩佐家が 주관하는 雷神社の 祈年祭(サンゾーロー祭り)에서 행해지는 龜卜의 神事を 다루고 있다. 현재도 70대를 세습하는 卜者が 있어 새해의 길흉을 점치며, 明治 초기까지 그 결과는 공식으로 보고되었다고 적고 있다. 또 임동권은 『한국에서 본 일본의 민속문화』(민속원, 2004, 45-46쪽)에서 제사 참여자는 上리에 있는 구장집에 모여 목욕제계 및 점심을 먹고, 保床山の 女竹으로 75개의 활과 화살을 만든 후 제당 일대를 청소하고 불을 피우며 활을 세 번 쏘아 귀신을 쫓은 다음, 숯불에 거북껍질을 태워 점친다고 한다. 특히 구복의 기법은 구복을 세습하는 岩佐家に 전하는 『龜卜傳義抄』를 통해 해석하는데, 쓰시마의 구복은 1978년 12월 8일 나가사키현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밖에 쓰시마의 구복에 대해서는 東アジア怪異學會 편, 『龜卜』, 臨川書店, 2006, 225-251쪽.; 永留久恵, 『對馬歴史觀光』, 杉屋書店, 1994, 129-154쪽을 참조.

45) 『津島日記』 下, 6월 10일. <釜山風俗>, “婿マツ婦ノ家ニイタル 多クハ間數モナ

(㉸) 그 중에 한문으로 쓰인 조선 서적이 있는데, 큰 글씨로 그 나라의 『回逆訓』이라고 있다. 곧 『퇴계집』 등에 보이는 ‘라면羅隱’·‘래서乙恕’와 같은 것이다. 내 스승이 일찍이 이와 같은 것을 간략히 적어 놓은 초록이 있다. 이 초록을 섬의 통역사에게 물어보니 조선인이 이를 ‘이두’라 칭한다고 했다.⁴⁶⁾

(㉸)는 초량왜관에 머문 적이 있는 쓰시마의 의사 平山周齋로부터 전해들은 ‘부산 풍속’ 중 결혼 풍속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 부산에서 행해진 전통혼례속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조선의 혼례에 대한 草場珮川の 관심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이어서 음란한 행위를 한 부산의 남녀들에 대한 정치방법도 기록하고 있어 19세기 초의 부산의 풍속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는 平山周齋로부터 빌린 책에 기록된 조선의 이두에 관한 관심을 적은 것이다. 그는 쓰시마에서 이두의 번역본 사본을 얻은 뒤 <吏道 朝鮮國訓>이라는 항목 아래 ‘隱-은’·‘萬-만’·‘伊-이’를 비롯해 ‘良中-에서’·‘不冬-아니더라도’에 이르기까지 55개의 이두를 기록하고 있다. 草場珮川の 조선어에 대한 관심은 5월 21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국서전명식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선말을 전해 듣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기록한 조선말은 ‘하늘-천’·‘하나’와 같은 짧은 단어에서부터 ‘떡을 갈아 주십시오-모타루 가라 쓰오부소’와 같은 문장에 이르기까지 약 160여 개 항목에 이른다. 이 중 ‘여섯, 일곱, 열’의 세 단어는 1810년 나가사키에 표류한 조선인에게 전해들은 것이라고도 덧붙이고 있다.

キ住居ナレバ 親兄弟ハ立去テ 親類又ハ隣家ニ宿リ 夫婦ノミヲ入レ置テ 外ヨリ 鎖シ置コト三日 ソノ開クヲ待テ出タルハ 縁ノ定リトス モシ夫婦相合ザルバ 日限ノ内ニ戸ヲ排キ壁ヲ破テ出ル コレ絶縁ナリ”.

46) 『津島日記』 上, 5월 5일, <吏道 朝鮮國訓>, “中ニ正文ノ韓本アリ 大字ニシテ彼方ノ回逆訓アリ 乃チ 退溪集ナトニ見エタル羅隱乙恕ノ類ナリ 我師嘗テ此類ヲ抄録セシラレタルアリ 此ヲ島ノ譯士ニ問フニ 韓人コレヲ吏道ト称スト云リ”.

4) 통신사행에 대한 비판의식의 노정

草場珮川은 외교 일선에서 통신사를 접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사의 행동과 일본의 접대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번의 통신사는 너무 승양을 받아 매우 자부심이 높고 거만하였다. 우리의 기예를 장려하고 칭찬하며 서화 등을 구해 돌아가는 일은 전혀 없었다. ... 통신사를 맞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붓을 휘두르며 과시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칭찬하지 않았다. 알맞은 기예를 준비해서 바쳐도 흥미를 느끼지 않아 물러난 적이 많았다.⁴⁷⁾

草場珮川은 먼저 기해사행(1719) 때 일본인들이 자신을 승양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 통신사가 자부심이 높고 거만하여 일본 측에 서화를 요구하여 가져간 적이 없음을 비판한다. 이어 당시 막부를 대표하는 서예가인 細井廣澤조차 통신사 앞에서 재주를 과시했지만 칭찬을 받지 못한 사실을 거론하면서⁴⁸⁾, 통신사가 일본의 기예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외교사행에서 통신사가 무례한 행동으로 문화 교류의 진면목을 잃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물론 6월 3일의 일기에는 통신사의 무례가 먹고 잘 시간조차 주지 않는 일본인의 교류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며 통신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

47) 『津島日記』 下, 6월 26일, “前前ノ聘客ハ アマ崇仰スキシママニ 甚自負踞傲ニシテ 此方ノ技藝ヲ獎譽シテ 書畫ナド需メ歸ルナドト云コトハ 絶テ無リシ由... 韓客ニ對シテ 今ヲ曠ト筆ヲ揮ツテ 見セ衞ヒシカトモ 彼レ少シモ褒ザル類ヒ 適之藝ヲ抱ヒテ進シモ 無興ニシテ退キシコト多カリシ由”.

48) 細井廣澤(1658~1735)은 이름이 知愼, 자 公謹, 호가 廣澤으로 별호는 思貽齋·蕉林庵·奇勝堂이다. 坂井伯元·林鳳岡에게 주자학을, 北島雪山에게 서예를 배웠다. 기해통신사(1719)의 방일 때 ‘廣澤 細井次郎大夫’라는 이름으로 에도에서 제술관 신유한, 서기 강백·성몽량·장응두 등과 장화한 시가 『朝鮮人對詩集』 권2(일본 국립공문서관 內閣文庫本)에 전한다. 그런데, 草場珮川의 비판과 달리 신유한은 <奉和廣澤惠韻>에서 그를 “새로운 글 풀이에 속세의 기운이 전혀 없다(解道新篇無俗氣)”라며 칭찬하고 있다.

이기도 한다. 하지만 以酩蕘에 머물던 일본 문인 吉浦源六이 이번 통신사도 오줌 기운이 독을 없앤다며 요강 뚜껑을 잔으로 사용하고 실제 잔을 권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매우 사리분별이 없는 행동”(6/26)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만다.

그런데, 草場珮川이 통신사의 무례한 행동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매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학자답게 통신사에 대한 일본 측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사) 옛날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니, 막부가 신의를 체득한 정성스런 뜻에 어긋나게 때로 허식을 차리고 요란하게 과시하는 것도 있어서 혼자 힘으로 다룰 수 없는 새 칼이나 몸에 걸칠 수 없는 무거운 갑옷, 나사가 돌지 않는 총 등을 선물하였다고 한다. 이는 꼭 지어낸 이야기만은 아니다. 에도 막부에서 통신사가 에도성을 방문할 때 성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성문으로 성곽을 나와 몇 번이나 돌아 길을 잃게 만들어 쇼군의 거처가 깊고 근엄한 곳으로 보이게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⁴⁹⁾

(아) 오늘 아침에 두 사신이 본토로 배를 타고 돌아갔다. 너무 갑작스러워 통신사 일행이 주된 손님보다 먼저 물러가는 예가 어디 있느냐며 나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⁵⁰⁾

(사)는 이전 사행에서 행해진 일본 측의 통신사행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본 측이 통신사에게 몸에 걸칠 수 없는 갑옷이나 나사가 돌지 않는 총을 선물하고, 국서전달을 위해 통신사가 에도성을 방문할 때 일부러 들어간 성문과 다른 성문으로 나오게 해 헛갈리게 함으로써

49) 『津島日記』 下, 6월 26일, “前古ノ說ヲ傳へ聞ニ 幕府體身盛意ニ違テ 或ハ虛飾誇耀ノコトトモ有シ故 一人力ニ勝サル新刀又身ニ廣ゼザル重キ甲骨 螺轉ナキ鐵砲一ナドヲ贈ラレシ由 此等ハ必ズ妄說ニテモアランカ 江府ニテ韓使登城ノ時 城門ヲ入テ 又別門ヨリソノ輪廓ヲ出テ 幾度モハシテ如此引迷ハシテ 君居ノ深嚴ナルヤウニ欺ルルコトアリシ由”.

50) 『津島日記』 下, 6월 19일, “今朝兩侯歸帆 余リニ遽ナルユヘ 韓客ナト主人ヨリ先退クノ禮アリヤト 訝リシトノ風說アリ”.

막부의 권위를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는 신미사행에서 벌어진 일로 6월 19일 일본 측 상·부사가 통신사가 귀국도 하기 전에 먼저 본토로 돌아간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유상필의 『동사록』에는 이날 도주가 배푼 上船宴에 양국의 사신이 참여하여 즐겼으며, 일본 측 사신들이 다음날 새벽에 발선한다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草場珮川은 손님보다 주인이 먼저 행사장을 떠나는 주객전도의 상황에 대해 조선 측이 항의한 사실을 굳이 작은 글씨로 적고 있다. 자신이 보기에 일본 측의 대응이 예에서 어긋한 행동임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草場珮川은 양국의 이와 같은 행동들이 신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사행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는 “무릇 국가 간에는 은혜와 신의로 손님을 대접한다는 본뜻에 따라 예전같이 주인과 손님이 서로 불손함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¹⁾라며 바람직한 교류의 방향을 양국에 제시하고 있다.

5. 마무리

이상으로 草場珮川의 『쓰시마일기[津島日記]』에 반영된 신미통신사(1811)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쓰시마일기』의 형성 배경을 살폈다. 『쓰시마일기』는 草場珮川이 스승인 古賀精里를 따라 쓰시마에서 조선에서 파견한 신미통신사(1811)를 맞아 외교활동을 펼쳤던 사실을 기록한 일기체 사행록이다. 통신사를 맞아 교류하고 쓰시마를 견문한 소중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草場珮川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었다.

51) 『津島日記』 下, 6월 26일, “抑國家恩信ヲ以テ 大賓ヲ禮待セラル本意ニ隨ヒ 以前ノ如ク主客乖角不遜ノ光景ニ到ラセルヤウ”.

둘째, 『쓰시마일기』의 서술 체제상의 특징을 살폈다. 『쓰시마일기』는 국서전명식과 향응례를 기준으로 卷을 나누었고, 서술 형식은 일정한 체계가 없되 그날 견문한 내용과 공문서 등은 당일의 일기 속에 모두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일기 속에 자신이 직접 그린 삽화를 수록함으로써 일기의 기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했다.

셋째, 『쓰시마일기』에 반영된 신미통신사의 모습을 살폈다. 『쓰시마일기』는 일본 사행단의 통신사 맞이와 여가 활동, 필담창화를 비롯한 양국의 문화교류, 쓰시마와 조선에 대한 정보의 채록, 통신사행에 대한 비판 의식의 노정 등 신미통신사를 대하는 일본 사행원의 활동과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草場珮川の 『쓰시마일기』는 일본 사행원의 시점에서 신미통신사행을 살핀 사행록으로, 『동사록』과 같은 통신사 사행록과 함께 신미통신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季刊『銀花』(夏・78号), 文化出版局, 1989.
- 김선신, 『淸山島游錄』, 1816,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김이교, 『辛未通信日錄』, 1811,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소장본.
- 三宅橘園, 『鷄林情盟』, 1812,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古賀精里 外, 『對州客館筆語』, 1811, 東京都立圖書館 소장본.
- 유상필, 『東槎錄』, 1811,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松崎謙堂, 『接鮮瘡語并游豆小志』, 1815,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猪飼正毅, 『朝鮮人詩賦』, 1811, 일본 名古屋市蓬左文庫 소장본.
- 草場珮川, 『珮川詩鈔』, 書林文榮堂, 1853, 日本國立公文書館 소장본.
- _____, 『津島日記』, 일본 多久市郷土資料館 소장본.
- 草場珮川 著・三好嘉子 교주, 『草場珮川日記』, 西日本文化協會, 1978.

2. 논저

- 高橋博已, 『草場珮川』, 佐賀縣立佐賀城本丸歴史館, 2013.
- 국립해양박물관 엮음, 『쓰시마일기[津島日記]』, 민속원, 2017.
-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집성사업팀,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자료사전 III·하』, 문예원, 2013.
- 東アジア怪異學會 편, 『龜卜』, 臨川書店, 2006.
- 富士川英郎, 『江戸後期の詩人たち』, 平凡社, 2012.
- 三宅英利 著・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 신로사, 『1811년 신미통신사행과 조일 문화교류: 필담·창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2011.
- _____, 『신미(1811) 통신사행과 문화 교류에 관하여』, 『한문학보』 23호,

- 우리한문학회, 2010, 469-500.
- _____, 『김선신의 생애와 그의 저작에 관한 일고』, 『동방한문학』 36집, 동방한문학회, 2008, 129-155.
- 永留久惠, 『對馬歷史觀光』, 杉屋書店, 1994.
- 이에니, 『『쓰시마 일기(津島日記)』(草場珮川, 1811)』, 『역사와 세계』 52, 효원사학회, 2017, 263-272.
- 이원식, 『1811년 對州易地聘禮와 문화교류』, 『조선통신사연구』 14호, 조선통신사학회, 2012, 127-135.
- 이주영, 『1811년 신미통신사행의 통신사선 운항요원 복식』, 『한복문화』 19-3호, 한복문화학회, 2016, 115-127.
- 이 훈, 『비용으로 본 교린의례』, 『한일관계사연구』 38집, 한일관계사학회, 2011, 155-196.
- 長正統, 『影印本 津島日記』, 西日本文化協會, 1978.
- 猪口篤志 著, 심경호·한예원 역, 『일본한문학사』, 소명출판, 2000.
-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 조선총독부 중추원, 1940.
- 정성일, 『통신사를 통해 본 물적 교류』, 『항도부산』 36집,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1-52.
- 정은주, 『1811년 신미통신사 빈례(賓禮) 관련 회화 연구』, 『정신문화연구』 138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5, 163-195.
- _____, 『1811년 쓰시마 통신사행의 서화 교류』, 『동아시아문화연구』 60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133-167.
- 中島槐堂, 『佐賀先哲叢話』, 佐賀木下泰山堂, 1902.
- 眞壁仁, 『徳川後期の學問と政治』, 名古屋大學出版會, 2007.
- 한대문, 『통신사 왕래를 통한 한일 연회 교류』, 『지역과 역사』 23호, 부경역사연구소, 2008, 5-34.
- 황은영, 『1811년 신미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에 대하여』, 『강원사학』 22·23합집, 강원대학교사학회, 2008, 157-170.

<Abstract>

A Study of Shinmi-Tongsinsa(1811) Reflected in the 'Diary of Tsushima(津島日記)'

Han, Tai-Moon*

This study examines Shinmi-Tongsinsa(1811) reflected in the '*Diary of Tsushima*[津島日記]' by Kusaba-Hisen[草場珮川].

First,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Diary of Tsushima*' was examined. '*Diary of Tsushima*' is a meandering record of the fact that Kusaba-Hisen followed his master Goka-Seiri[古賀精里] to Tsushima [對馬島] and conducted diplomatic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Shinmi-Tongsinsa(1811) dispatched from Joseon. Kusaba-Heizen's will to keep a record of his valuable experiences of interacting with the Tongsinsa and visiting Tsushima was well reflect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system of '*Diary of Tsushima*' was examined. The '*Diary of Tsushima*' is divided into books based on the ceremony to deliver the national anthem and ceremonies of hospitality. Although there is no fixed format for the narrative, the contents of the day's experience and official documents are all recorded in the diary of the day. In particular, by including illustrations drawn by himself in the diary, he contributed greatly to making the description of the diary more concrete and helping the reader's understanding.

Third, the appearance of Shinmi-Tongsinsa reflected in '*Diary of*

* Pusan National University

Tsushima was examined. *Diary of Tsushima* were well reflected entertainment and leisure activities for Tongsinsa of the Japanese delegation,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luding writing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f Tsushima and Joseon, and expressing criticism of Tongsinsa, etc.

As such, Kusaba-Heizen's *Diary of Tsushima* reflects of the Shinmi-Tongsinsa from the point of view of a Japanese delegation.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e text can be highly appreciated as a valuable text that can understand Shinmi-Tongsinsa three-dimensionally along with the record such as *Dongsarok*

Key Words: Kusaba-Heisen[草場珮川], *Diary of Tsushima*[津島日記], Shinmi-Tongsinsa(1811), Tsushima[對馬島], cultural exchange.

■ 논문접수 : 2021년 10월 27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1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

